



이민아 옮김  
까지/A5신/288면/9000원

프란세트 팍토의 《미인》은 제목이 함유하는 의미만큼이나 매력적이고 현란하고, 그리고 복잡하다. 책의 서두 〈들어가는 말〉에서 팍토 자신이 밝혔듯 그는 이 책에서 “아름다움을 여자의 가치를 재는 유일한 척도로 사용하는 세대가 얼마나 경멸스러운지” 밝히고, 또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식민주의, 포스트-페미니즘에 다다른 오늘날의 사회에도 이런 미의 기준이 여전히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폭로하며 더 나아가 여자의 아름다움이 “역사적 시기별로, 문화권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표지에 붙은 소개글에 따르면, 저자는 프랑스의 그르노블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했고 영국으로 옮겨 사진을 공부한 뒤, 1991년에 캔터베리의 켄트대학에서 역사와 예술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게티재단의 장학금으로 샌타 크루즈 소재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예술사연구로 포스트닥터(박사학위 이후 연구) 과정중이다.

### 장르와 영역 넘나드는 분방한 글쓰기

출생년도가 나와 있지 않아 정확치는 않지만 91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감안한다면 저자는 많아야 40대 전후의 여성인 것 같다. 또한 언어학·사진·예술사를 망라하는 그의 전공분야는 르네상스에서 현대까지, 또 프로이트·라캉·크리스테바 등의 사상가, 오드리 햅번·그레이스 존슨·줄리아 로버츠 등 오늘날의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영역을 넘나드는 그의 분방하고 현란한 글쓰기가 수궁이 가게 만든다. 그러나 서구문화비평에 익숙치 않은 독자라면 일일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참고와 역주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인’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이 책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다.

팍토는 이 책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남성예술가들의 추구를 ‘미인은 없다’는 실패 사

## 욕망이 빛은 환상에 초점 맞춘 ‘미인론’

프란세트 팍토의 《미인》을 읽고

류숙렬 | 문화일보 국제부 차장

매력적이고 현란한 팍토의 《미인》은 여자의 가치를 재는 유일한 척도로 아름다움을 사용하는 세대의 경박성을 공격한다. 팍토는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틀지워지는 환상에 더 관심을 쏟으면서, 결국 “아름다움은 제 눈에 안경”이라고 결론짓는다.

레로 시작한다. 발자크의 〈미지의 걸작〉에서 노대가 프렌호퍼의 ‘커튼 뒤 여인’은 한쪽 발만을 드러내고 신체의 나머지 부분은 영구히 매장된 채로 남는다. 이후 1970년대 여성운동의 부흥 초기, 페미니즘비평은 여성신체의 상품화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다. 여성이 젊고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표현되는 세계에 대한 여성들의 항의는 짧게 친 머리, 실용성 위주의 멜빵바지, 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 등 ‘미인 제거 의지’로 표현됐다.

여성누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분노는 그 유명한 ‘벨라스케스의 비너스사진’이 응축적으로 또 코믹하게 보여준다. 영국의 유명한 참정권 투쟁 운동가였던 메리 리처드슨은 1914년 3월 10일 런던 국립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의 명작 〈거울 앞에 누운 비너스〉를 도끼로 망가뜨리고 법정에서 “한 여성에 대한 영국정부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작품을 파괴한 것”이라고 진술,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나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다).

### “아름다움은 제 눈에 안경”

그러나 그런 정치적인 반응만으로 아름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프로이트는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에서 “내 생각에는 ‘아름답다’는 개념이 성적 흥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쓰고 “사람은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냄새에 의한 성적 매력에서 코를 돌려 시각이 우세하게 됐다”고 ‘미인’에 대한 남성의 추구를 설명했다.

그러나 팍토는 보논이의 눈이 집착하는 심리적인 장치에 더 흥미를 보인다.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틀지워지는 환상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결론은 “아름다움은 제 눈에 안경”(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이라는 말이다.

팍토는 페미니스트들이 ‘욕망을 품은 남성의 시선’(Male Gaze)에 겨눴던 공격의 화살을 상당 부분 여성의 ‘자기에’로 돌린다. 여성 스스로 자신에게 품고 있는 ‘자기에’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상적 여성의 이미지와 여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타자와 맺는 어떠한 관계에도 욕망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내게 원하는 게 뭐죠?” 혹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욕망이 될 수 있나요?” 이제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과 분리되지 않는다. 결국 문제는 백설공주의 계도가 거울에게 잘못 물은 영원한 수수께끼(“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의 답이 누구냐는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거울에 비친 여성 자신과 그를 바라보며 질문하는 여성 자신의 끝없는 싸움일지도 모른다.●